

**BAMA**

APRIL  
02-05  
2026  
BEXCO

**BAMA**

2026BAMA15<sup>th</sup> **BUSAN  
ANNUAL  
MARKET OF  
ART**  
제15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주최 (사)부산화랑협회 2026BAMA조직위원회 주관 (사)부산화랑협회 2026BAMA운영위원회

GALLERY  
SERENE  
SPACE

Booth NO.  
**C - 03**

VIP PREVIEW APRIL 02 | BEXCO | 04.03-05. 2026

# 2026 BAMA | GALLERY SERENE SPACE



GALLERY SERENE SPACE




BAMA SERENE FLOW MAP



ART FAI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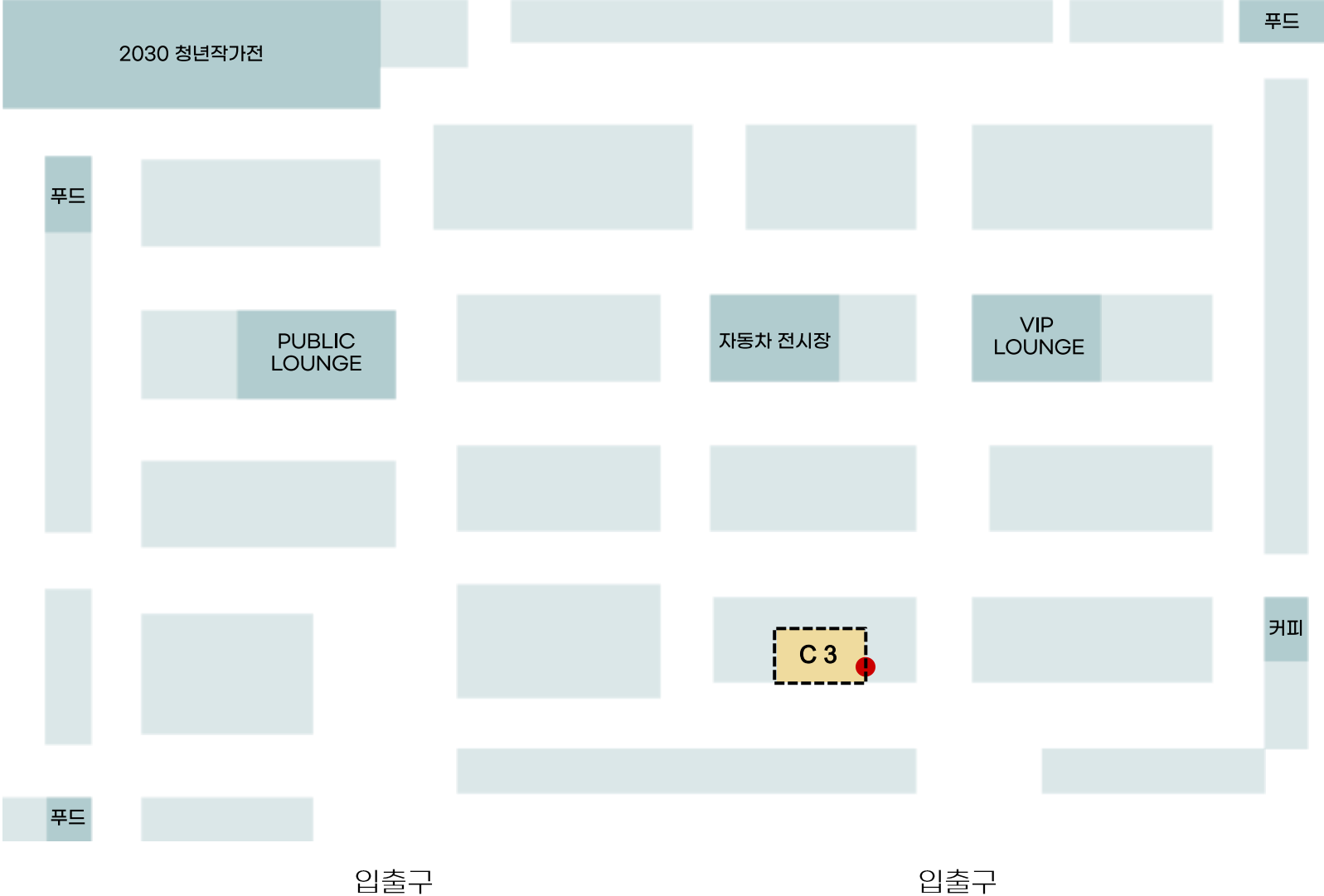
# 2026 BAMA SCHEDULE

---

Apr 2 (Thu)	Apr 3 (Fri)	Apr 4 (Sat)	Apr 5 (Sun)
 VIP/Preview/Press <b>15:00-20:00</b>	<b>일반</b> <b>11:00-19:00</b>	<b>일반</b> <b>11:00-19:00</b>	<b>일반</b> <b>11:00-18:00</b>

---

# BAMA FLOW MAP



## Artist

JEONG EUN JU

KIM BYUNG JIN

CHO KWANG HUN



Artist 정은주

JEONG EUN JU

*b.1964*

# Jeong Eunju

GALLERY  
SERENE  
SPACE

1964년생인 정은주는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수학했다. 서울, 일본, 독일 등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다수의 개인전('Into The Color', '숨' 등)과 아트페어, 그룹전에 참여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재 대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Dartist'로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은주의 작업은 '선'과 '면'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수만 번의 반복과 교차로 이루어진 화면은 수행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시간의 층위이자 존재의 증명이다. 이 정교한 색면 세계는 기하학적 형식을 넘어 관람객과 마주하는 순간 살아있는 상징으로 거듭난다.

작가는 평면과 입체, 미니멀리즘과 추상 사이의 '사이 공간'을 탐구하며 인지의 확장을 유도한다. 특히 평면이 입체적 깊이로 전이되는 찰나의 감각은 고착화된 시각적 관념을 깨뜨린다. 강렬한 보색 대비와 조화로운 색조의 운용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인간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



GALLERY  
SERENE  
SPACE

사진출처: 서울신문 정서린 기자 기사

Artist 김 병 주

**KIM BYUNG JOO**

*b.1979*

# Kim Byungjoo

GALLERY  
SERENE  
SPACE

김병주(b.1979) 작가는 닫혀 있는 사물함과 같은 소규모 오브제를 비롯하여 건물과 같은 건축적 구조물의 드러나지 않는 내부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작업의 모티브로 삼았다. 그는 스틸(Steel)로 만들어진 직선을 조합하여 건축물의 내외부 형상을 부조나 환조의 형식으로 구현하여, 보이지 않는 내부 공간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작업을 함으로써 안과 밖의 모호한 경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닫혀 있는 내부 공간을 드러내는 작업은 단순히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치는 것은 아니다. 김병주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안과 밖으로 양분되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성이다.



Artist 조 광 훈

CHO KWANG HUN

*b.1985*

# Cho Kwanghun

GALLERY  
SERENE  
SPACE

조광훈(B.1985) 작가는 건국대학교 공예학과 도자전공,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했다. 《Observer》,한국공예관,청주,2023, 《Ordinarydreams》,아트링크갤러리,서울,2019, 《MEDITATORS》,조은숙갤러리,서울, 2018, 《PUNISHMENT》DURUARTS PACE,서울, 2016 개인전을 가졌으며 《정중동:드러나는한국미의정신》,시가라키도예의숲미술관,시가라키,일본 2022, 《혼행일치》,한국공예관,청주, 2022, 그 외 국내외 25번의 단체전을 활동을 가졌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센터퀸즈W에 부산에서 최초로 세라믹의 주재료의 한계를 넘어서 브론즈를 활용한 대형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작가는 계속해서 독창성을 추구하고 예술적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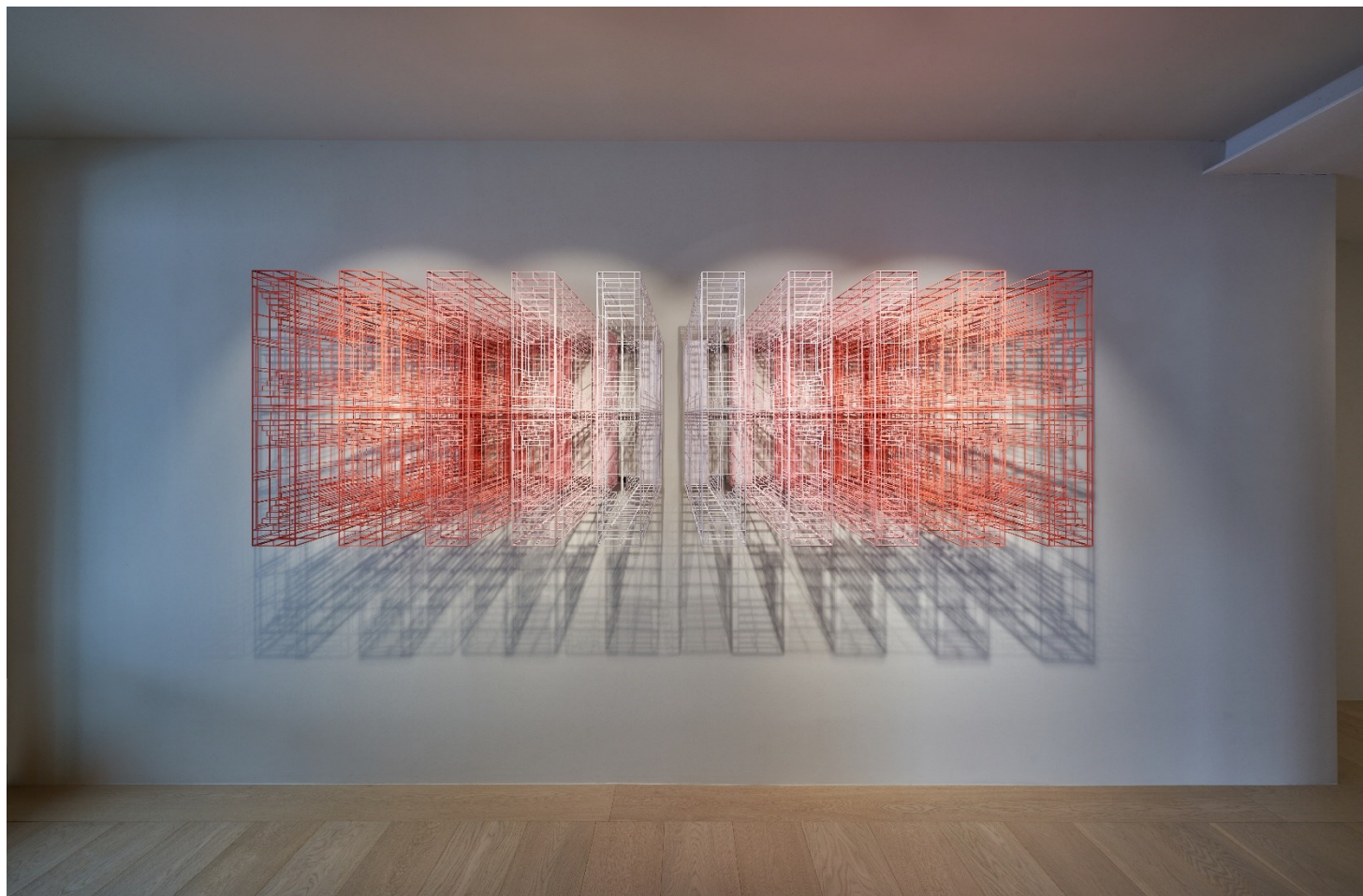
작가 조광훈은 코일링 기법을 활용하여 흙 반죽을 길쭉하게 늘리고, 아래에서부터 쌓아가며 독특한 형태의 작품을 창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속이 비어 있는 독특한 완성이 탄생한다. 작가는 산책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거나 아이와 놀면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나 특이한 포즈에서 영감을 받는다. 또한 작가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과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이상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담아내고자 한다.



***Wood Series***

*Jeong Eun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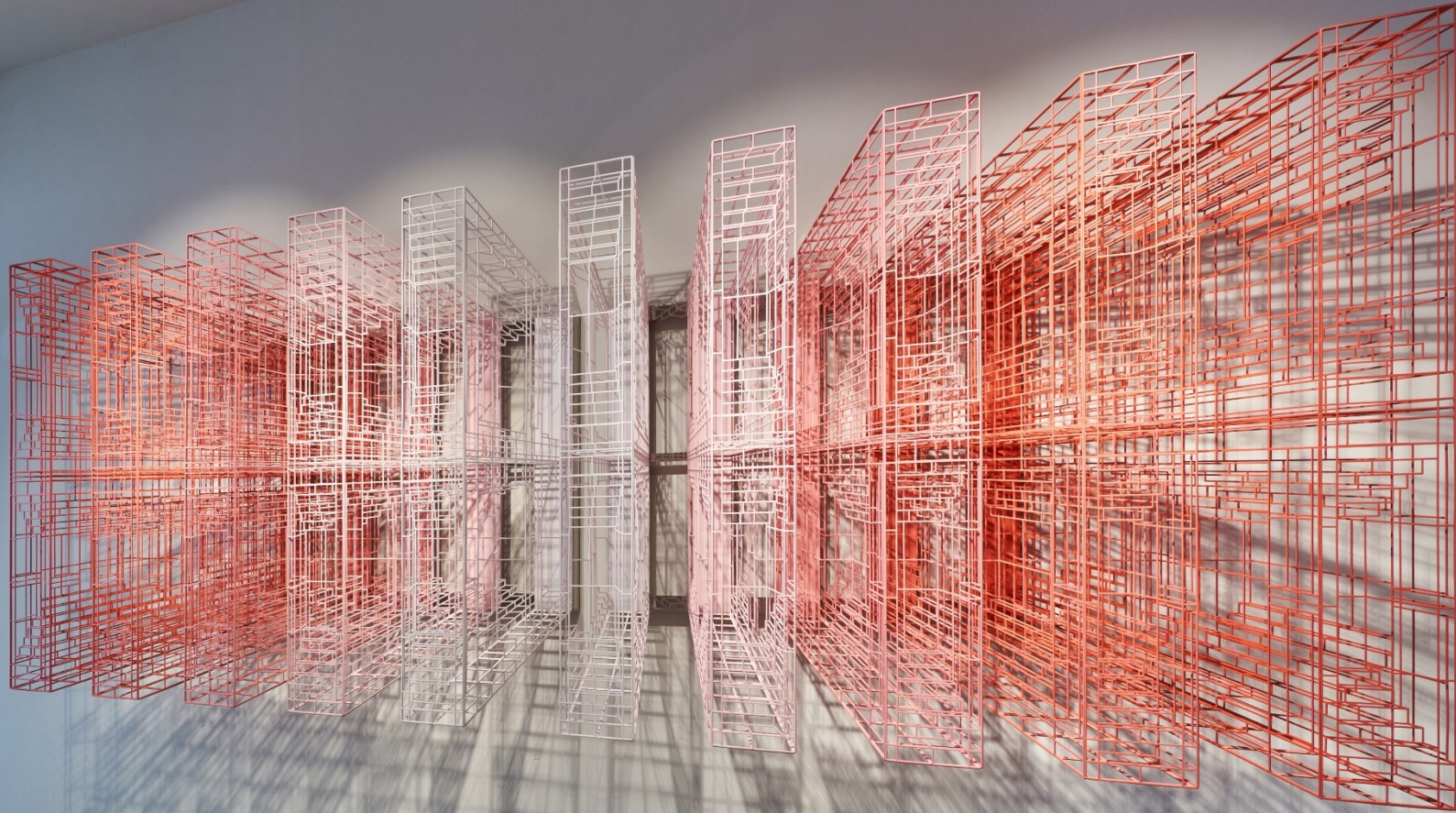
203 x 15 x 5 cm  
Acrylic on wood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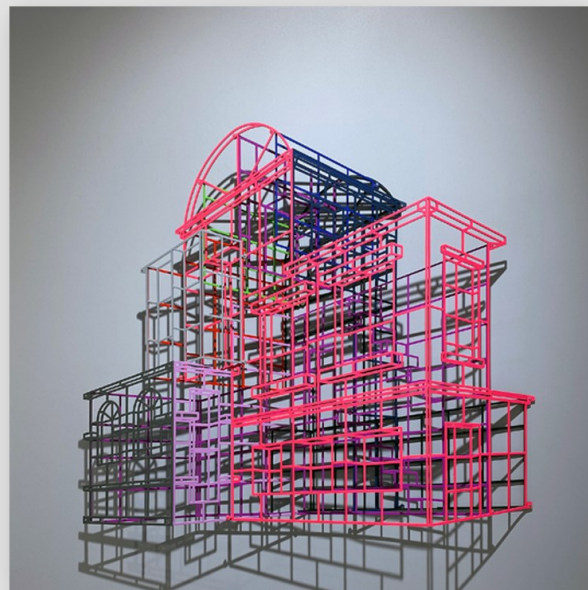


***Ambiguous wall-Symmetry R5104 1;3***

*Kim Byungjoo*

770 x 2440 x 200 (mm)  
Laser cut steel, Urethane paint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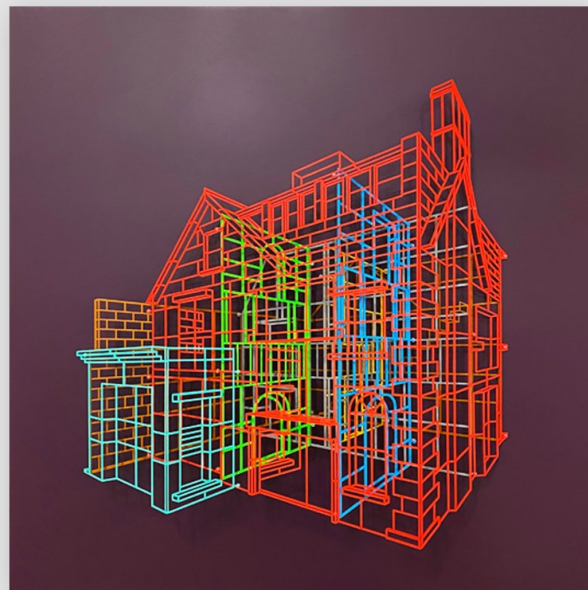
***Ambiguous wall-Complex\_0302***

*Kim Byungjoo*

800 x 800 x 125 (mm)

Laser cut steel, Urethane paint, Acrylic board

2023



***Ambiguous wall-Facade\_0517***

*Kim Byungjoo*

800 x 800 x 125 (mm)  
Steel, Acrylic board, Urethane paint  
2022

***Easily broken 021325***

*Cho Kwanghun*

270 x 300 x 470 (mm)

Ceramics

2025



+ 82 051 742 7422

[galleryserenespace.com](http://galleryserenespace.com)

[galleryserene@gmail.com](mailto:galleryserene@gmail.com)

Zenith Square A Tower 607, 33, Marine City 2-ro, Haeundae-gu, Busan.

**GALLERY  
SERENE  
SPACE**

